

Vol. 234

2021

10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8)

박해와 선교현장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현장스토리
시리아 청년 ‘안와르’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오늘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브라더 앤드류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설립자)

한 여성 기자가 나에게 익숙하고도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했다. “당신이 24시간 후에 죽는다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산다면,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라고 말한 친구 생각이 나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겨우 하루라는 시간 속에 모든 중요한 일을 압착시켜 넣어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또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이며, 귀한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더구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없이 살아갈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해 달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한 뜻을 돌이켜 달라고 구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비전과 기도가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지금이다.”라는 격언에는 상당한 진리가 들어 있다. 성경이 말하듯이 “지금은 구원의 날”(고후6:2)이다.

그러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지라도, 그 파문은 계속 퍼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남아서 무덤을 넘어 미래의 삶과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기도의 덕을 본 사람들이다. 신실하게 중보기도를 했으나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기도의 직접적인 결과로 역사는 이 세상 전역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처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히11:39-40)이다.

생각만 해도 굉장한 일이 아닌가? 우리 기도의 효과나 효율성에는 한계가 없다. 이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표적을 남기기 원한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참여하는 것보다 더 위력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다면 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도 우리의 기도는 갈 수 있다. 우리는 기도로 국경과 감옥의 벽을 넘어갈 수 있다.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이름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가까운 조연자들 모두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칠 수 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많을지라도 기도의 영역에서 불가능은 없다.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대답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채에 처서 거르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 좀더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새롭고 산 길”(히10:20)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고전2:9; 사64:4)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 놓기 원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또한 기도의 잠재력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에 백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세상을 뒤튼들 일을 구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일을 우리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OpenDoors 7가지 핵심 가치



- 0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02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03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04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05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0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0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8)
- 08 박해와 선교현장 - 아프가니스탄
- 12 사진 - 아프가니스탄의 얼굴들
- 14 심화현장 - 샤리아 법 지배 하에 들어갈 아프간 비밀신자들
- 15 심화현장 - 아프간 상황 Q&A
- 17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 18 현장스토리 - 시리아 청년 ‘안와르’ 이야기
- 21 현장스토리 - 베트남 6가정 물탱크
- 22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2021년 10월호 | 통권 234호 | 등록번호-성북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에스더, 문민환,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8)

- 농건대, 구류장, 재판 -

마리아 자매

예심을 위해 구류장으로 이동할 줄 알았지만, 당시에 보안서(남한의 경찰서에 해당) 소속의 모든 구류장은 죄인들이 꼭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그 근처에 세워진 농건대(농촌건설대) 회사 폐건물로 이동되어 약 두 달간 머물렀다.

이곳 상황도 어느 수감시설보다 열악하면 열악했지 더 나은 것이 없었다. 농건대는 남자와 여자 칸으로 나누었는데 한 방에 대략 50명씩은 살았었다. 마땅한 화장실 없이 방 구석에 아주 큰 통을 놓고 볼일을 보게 했다. 매일같이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을이라 그런지 날씨가 금방 쌀쌀해졌고 모두 긴 옷차림으로 웅기종기 모여 앉았으나 찬 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방 뒤쪽에 커다랗고 둥그런 연통이 방안을 가로질러 지나갔는데, 그 연통이 그나마 따듯했다. 오래 있던 죄수들은 점점 뒤로 밀려나 그 연통과 가까운, 덜 추운 곳에 앉았고 금방 온 신입들은 연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감방 맨 앞에 앉도록 했다. 식사 배급으로는 불린 국수를 주었다. 옥수수 국수 면발을 몇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불리고 또 불렸던 것이라 한 번 훌쩍 먹고 소변을 보고 나면 도로 배고팠다.

농건대 생활은 일반 교도소와 거의 흡사했다. 보안서 관할의 경찰관들이 죄수들을 다루었는데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괴롭혔다. 자기들 비위에 맞지 않으면 마당에 있는 통나무 한 무더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시켰다.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했다. 어떨 때는 노래도 시키고 춤도 시켰는데, 누가 잘했나 그 순위를 가리는 것은 순전히 간수들 마음이었

다. 각종 경기를 시켜서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벌칙으로 간이 변소에 있는 똥을 손으로 쥐게 했다. 다행히 워낙 노래에 취미가 있던 나는 장기자랑을 시킬 때마다 일부러 혁명적인 노래를 골라 불렀다. 직전 파출소에 있을 때 노래를 하나 배워온 것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은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떠오르지 않았다. 하느수 없이 꼴찌를 하여 나와 어떤 여자 둘이서 밖에 나가 똥을 손으로 쥐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가보니 똥이 모두 얼어있었다. 도저히 만지지는 못하겠기에 형사에게 빌었다. “제발 선생님을 만족시키도록 웃기게 할 자신이 있으니 한 번만 살려주시지요.” 위에서 우리를 뒷집 지고 내려보더니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풀어주었다. 들어와서 광녀처럼 정신없이 춤을 추고 노래했던 것이 기억난다. 오로지 간부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상황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정과 담대함을 주신 것 같다. 어떤 날은 아침 댓바람부터 마당에 죄수들을 일렬로 세워서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 반대편 펌프가 있는 곳까지 경주해서 3등 안에 들어야 세수를 할 수 있었다. 나는 2등을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당에서 흙길을 청소할 때 나는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세수를 했다. 얼음 같은 찬물로 세수를 했는데 참 그게 행복하고 감사했다.

하루는 두부콩 농장 일에 모든 죄수가 동원되었다. 나는 살면서 크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요령이 원체 없었지만 그곳에서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

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부들이 경주를 시켰는데, ‘요이, 땅!’ 하는 신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시작점부터 목적지까지 단을 베었다. 나는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질주하는 동시에 낮으로 내 앞의 단들을 서걱서걱 베었고, 결국 가장 잘하는 사람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상으로 평평이 가루를 한 덩이 얻어서 그날 저녁 떡을 지어먹었다. 꿀 같은 별식이었다.

하루는 간부가 전체 앞에서 나를 부르더니 식모로 임명했다. 아무래도 일전에 집결소에서 반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문서에 남아있었고 평소에도 열심히 활동했던 것이 간부들 눈에 띈 것 같았다. 식모의 주된 역할은 요리를 담당하는 것인데, 일반 죄수보다는 감시가 덜 했다. 일반적으로는 일에 동원되지 않는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부동자세로 앉아있어야 하지만 나는 그런 엄한 감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 요리를 하면서는 참 서글팠는데, 간부들 요리는 신경 써서 구색을 갖추었지만, 죄수들의 요리는 너무나 간단했기 때문이다. 그저 라면을 끓이듯이 물에 면발을 넣고 한두 시간 푹 삶았다가 때가 되면 100그램씩 나누어주는 것이 다였다.

이제서야 드는 생각은 도망갈 수 있었던 기회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은 외부에 있는 큰 배추 농장에 죄수들을 모조리 끌고 갔었다. 그곳은 보안서에서 감장 배추를 재배하는 곳이었다. 죄수들이 배추를 모두 수확하면 트럭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시소속 경찰관의 집에 가서 할당량씩 배급을 해주는 식이었다. 낮 동안 열심히 배추를 재배하고 나서 나머지 죄수들은 감방으로 돌아가고, 나와 다른 한 여자 죄수만 트럭에 남았다. 집집마다 배추를 배달하고 나니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고, 간부들은 “너네 차에서 좀 있으라.”라는 말을 남기고 모두 어디론가 한잔하러 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꼼짝없이 기다렸다. 기회는 있었는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바로 조선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사상으로 미혹시킨 김씨 일가는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닐까 싶다.

농건대 생활에 적응했을 무렵 구류장에 자리가 생겼다

는 소식이 들려왔다. 며칠 후 나와 몇 명의 죄수들은 그곳으로 이송되었다. 예심 구류장은 역시나 그동안 있었던 농건대와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실제로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었다. 늦가을쯤 이곳에 도착해 넉 달을 지냈으니 한겨울을 다 보낸 셈인데, 그때 겪었던 추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오들오들 떨린다. 영하 20~30도의 날씨에 햇볕도 없이 지냈다. 어떤 방에는 화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감방을 관리하는 계호원들만을 위한 난방 시설이었다. 죄수들은 아주 작은 방에 9명 정도가 지냈고 장소가 너무 비좁은 나머지 누울 때는 머리와 발을 서로 엇갈려서 누웠으며 천장을 못 보고 옆으로 새우잠을 잤다. 넉 달 동안 왼쪽 팔을 바닥에 대고 잤더니 나중에는 왼쪽 팔에 마비가 왔다. 나무판 바닥은 또 어찌나 시린지 바닥에 얹은 누더기 담요를 깔고 두꺼운 솜 점퍼를 입었는데도 찬 기운이 올라왔다. 여성들은 항상 동상으로 인한 발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나는 집에서 가져온 버선을 두툼하게 해서 발에 신었는데도 추위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나는 발동상은 면했으나 귀가 자꾸 가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귀는 이미 색깔을 잃어버리고 새까맣게 되었다. 너무 가려워서 귀를 긁으면 귀가 손바닥처럼 커다랗게 부어 올랐다. 너무 아파서 화도 내고 짜증을 부리면서도 하염없이 벽벽 긁었던 것이 생각난다. 9명의 죄수가 하나같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붙어서 사는 와중에 변소는 감방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온종일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전에 겪었던 구류장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운동



〈SBS가 입수한 구류장 촬영 동영상의 CCTV 감시화면 장면 (2011.02.12 SBS 8시 뉴스 "몸의 은 구멍에서 피가" 인권 실종된 북한 구류장)〉

을 할 시간을 주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부동자세를 취했다.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간수가 와서 커다란 열쇠 문지로 살 없는 손등을 내리쳤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손등이 아찔하게 아프다.

이곳 구류장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예심이 시작되었다. 예심이 끝나면 재판이 있고 이후에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나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너무 절망했다. 그때부터 주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나는 매일같이 예심으로 불려 나가서 반복적으로 같은 글을 쓰고 또 썼다. 예심은 정말 괴롭힘의 나날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당했다.

배식은 감방 철조망 밑의 작은 개구멍으로 들어왔다. 시라지와 옥수수 조금, 두부콩 밥, 소금국으로 허기를 달랬지만 너무 배고웠다. 하루는 남편이 면회를 왔는데 그이보다 그이가 가져온 음식에 더 눈과 손이 가는 나 자신을 보며 기가 찼다. 그만큼 감방 생활은 열악했다. 면회를 마치고 감옥 안으로 들어올 때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복귀 전에는 항상 몸 검사를 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받아온 옥수수엿을 조금씩 떼다가 몸에 붙이고 들어와서 배고플 때마다 떼어먹었다. 먹다가 걸리면 호되게 매를 맞았다.

어느 날은 예심에 불려가 글을 쓰고 있는데 담당 예심원이 나보고 아마 13년형을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억장이 무너졌다.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더니 예전에 내가 중국에서 남편과 일을 벌였던 것이 걸린 것이 아니냐고, 발뺌하지 말라고 혼이 났다. 알고 보니 내가 중국에 있을 적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아직은 북에 있던 남편에게 얼른 중국으로 오라고, 못 오겠으면 당신이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요청을 듣고 실제로 지인을 보내려던 것이 이번에 발각되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이 보냈다는 그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 아마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빼돌린 모양이었다. 어찌 됐든 남편 이름으로 법적 처리된 서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번에 나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듣고 감방으로 들어와서 하염없이 울었다. 세상이 이제는 무너진 느낌이었고, 내가 붙들고 있던 가장 마지막 희망마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목마르고 절망했다. 그때부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사실 예심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아주 컸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 라면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나를 이렇게 복송시키고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 갔고 절박함에 기도가 나왔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기 시작했다. 아침에 5분간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찬양 울동을 추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중국에서 성탄절 날 울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속으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며 기도했다. 옆에서 죄수들이 그제 무어나고 물어보면 중국에서 요가를 배워왔다고 그랬다.

기도 응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날 담당 변호사를 만났다. 북한에도 죄수들을 위한 변호사가 있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 그 사람은 죄수 몇 명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편이 되어줄 변호사라고 했다. 북한에도 재판 과정이 있다. 물론 남한행을 기도하다가 잡힌 사람이나 기독교인, 간첩 등 정치범에게는 해당 없는 사항이다. 이런 부류의 죄수는 구류장까지도 오지 않고 보위부 내에서 조사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 이 중 진짜 죄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명 과정을 거쳐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치범인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끝장이다. 나는 다행히도 정치범은 아니어서 재판을 받았다.

생전 처음 보는 변호사의 존재가 생소했지만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할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우리 가문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문인가를 생각해내었다. 아버지는 상이용사였고 오빠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니 이렇게 우리 가문은 조국 보위의 길을 걸었으며, 나 또한 과거에는 반역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부터 돌이키겠다는 말을 변호사에게 일러주었다. 변호사와

대화를 하면서 새삼 내 처지가 참 개탄스러웠다. 그저 시골 아낙네였던 내가 나라의 형편이 좋지 못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 것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장기간 복역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원망스러웠다.

다음 날 드디어 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정에 들어서 는 순간 나는 위압감에 못 이겨 찌그러진 강통처럼 위축되었다. 공기부터가 달랐다. 국장과 인공기가 정면에 커다랗게 달려있었다. 나는 족쇄가 채워진 채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위엄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검찰과 재판장, 피고 등의 단어를 술술 꺼냈다. 그는 나를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이 자는 이렇게 했다. 이 자는 저렇게 했다” 이렇게 호칭했는데, 그 말을 듣는 족족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 자는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나라를 반역하고 중국에 불법 월경을 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량을 조정했고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변호할 게 없느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나의 아버지와 오라비가 나라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열거했다.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피고는 더 할 소리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기서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가다듬어 겨우 입을 열었다. “두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본보기가 돼야 하고 아이들에게 나라에 떳떳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엄마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라 앞에 부끄럽고 자식들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은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비록 너희 아버지와 오라비는 조국을 위하여 큰 공을 세웠지만 너는 나라를 배반한 죄로 법조 제에 따라 비법월경 죄로 노동교화형 4년 형에 처한다.”

판결을 듣고 나는 펄펄 울었다. 맨 처음 구류장을 지나 집결소, 파출소, 그리고 농건대에 머물면서까지 나는 교화소에는 가지 않으려 무진장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다. 이후 열흘 동안은 상소기간이었다. 재판 이후 판결에 이의가 있는 죄수들은 상소하도록 되어있었다. 간수들은 상소 절차를 밟을 죄수들에게 용지를 나누어주었다. 일반 범죄자나



〈2015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형 선고 당시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 장면(우리민족끼리TV)〉

경제사범 중 일부는 상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두려워서 상소를 하지 못했다. 특히 나와 같은 탈북자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소를 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

재판 이후 나는 어디론가 불려갔다. 내 앞에는 소위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판결 이후부터는 석방 전까지 공민증을 박탈당하고 물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호원들이 흔히 교화소로 죄수들을 데리고 갈 때 “돼지 수매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혹여 내가 죽더라도 여기 이렇게 버리고 가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돌이켜보건대 나는 이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공포스럽다. 출구 없는 절망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 이 글을 쓰는 요즘에도 다시금 이때로 돌아가 악몽을 꾸곤 한다. 꿈만 꾸어도 혀가 마비될 정도로 끔찍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게 되었다. 그렇지만 도저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마음이 심란했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많은 성도 앞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말씀을 의지하여 무사히 간증을 나눌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악몽과 아픈 기억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때때로 그때의 기억이 나의 가슴을 찌르는 듯 조여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호에 계속)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인구 : 38,055,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99%)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수천 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2위, WWL2020-2위

기독교박해 지수 : 93.5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의 억압, 부족의 억압, 민족-종교적 적대감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아프간 국민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는, 국제군, 외교관, NGO사역자들과 같은 외국인들 외에는 기독교인이 없다. 모든 현지인 아프간 크리스천들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비밀신자들로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아프간에서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이슬람 법에 의해 죽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과 친족, 부족은 자기들 중 개종한 크리스천을 제거함으로써 ‘명예’를 지켜야 한다. 개종한 자는 죽이거나 또는 정신이상자로 분류하여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 개종한 크리스천은 국가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 뿐만 아니라 확대가

족으로부터 자비를 얻을 수가 없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독교인으로 의심되지만 해도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법정의 추구나 정치적 참여 행위조차 ‘서구’의 계획을 심화하는 외국의 대리인으로 의심을 받는다. 이는 곧바로, “(이슬람교의)불신자”들인 “외국 점령자들”에 반대하는 선동의 대상이 된다. NGO사역이나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조차 기독교를 들여오거나 개종을 시키려는 은밀한 수법으로 간주되어 공격을 당한다. 아프간인들은 정치가들보다 종교지도자들을 최고로 신뢰한다. 2019년 11월 발표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 이상이 종교지도자들이 더욱 정치에 관여하기를 바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응답자들이 98.5%에 달했다. 부족 종교(이슬람) 지도자들이 정치인이나 정



부관료들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다. 아프간 문화에서 부족과 종교적 정체성은 하나이고 똑 같다.

정치적 상황

1996년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과격한 샤리아법을 시행했다. 이는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군이 이끄는 다국적군에 의해 탈레반이 축출되기까지 계속되었다.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2004년 대통령 선거와 2005년 국회의원 선거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열릴 수 있었다. 미군 주둔이 계속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2020년 2월 탈레반과 합의안에 서명하고 2021년 5월까지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다. 2020년 6월말까지 거의 3분의 1을 철수했으며 2021년 7월, 남은 철군이 시작되었고 8월15일 탈레반의 카불 점령과 함께 8월 30일 미군은 완전히 철수했다.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 치하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로의 급격한 회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탈레반의 거점은 남부이지만, 2018년 6월의 한 보고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의 407개 구역(district) 중 178개가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하거나 장악중인 지역이었고 탈레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다. 정부는 398개 구역 중 단 133개 구역만을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탈레반은 2020년 평화협약에 서명한 때로부터 4월까지 45일간에도 4,500건의 무장공격을 감행했고 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다. 탈

레반 외에, IS와 알카에다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제 탈레반 집권으로 아프간이 이슬람극단주의 무장세력들의 도피처와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20년 5월에 카불에서 산부인과 병동이 무장공격을 받았고, 11월에는 카불 대학교가 공격을 받았다. ‘국경없는 의사회’ 마저 철수를 발표할 만큼 치안이 불안해왔다. WWL2021 기간에 국제 크리스천 구호사역자들 살해 사건 보고가 없는 것은 대부분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미 아프간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문화·경제적 상황

(UNDP2019, WB2020 보고 기준)

- **주요 종족 그룹** : 아프가니스탄 헌법에는 14개의 다른 종족 그룹이 있다. 그 중 다수 종족은 파슈툰, 타지크, 하자라, 우즈베크, 아이막, 투르크멘, 발로크 족이다. 최대 종족은 40%가 넘는 파슈툰족으로 탈레반의 기반.
- **주요 언어** : 파슈투어와 다리어(이란 파르시아어의 방언)
- **도시 인구** : 도시인구의 54%가 수도인 카불에 살며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2016년 월드뱅크 보고)
- **문자습득율** : 15세 이상 성인의 31.7%
- **보건** : 인구 10,000명 당 의사 2.8명, 병상 5개
- **인구/연령** : 인구의 42.5%가 14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는 2.6% - 중위연령 18.4세.
- **교육** : 평균 학교출석수학 기간 3.9년. 7세~17세 취학연령 중 44%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그 중 60%가 여자.
- **실업률** : 11.1%. 불안정 고용률 79.7~89.4%
- **국내난민/국제난민** :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국내난민이 4,350,000명 이상. 2019년에, 주로 이란으로부터, 50만 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국.
- **인간개발지수(HDI)** : 189개국 중 170위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746 USD, 경제성장을 1.8%(2018년 기준)
- **빈곤율** : 인구의 54.5%가 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의 24.9%는 극심한 다면적 빈곤 생활.

※ **국제원조 경제** : 2020년 보고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예산의 48%가 국제원조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

적인 수치일 뿐 실제 수치는 75%로 추산하며 전에는 90%에 달했을 것으로 본다. 다국적군의 철수와 함께 이러한 국제원조가 고갈될 때 어떻게 될지 큰 문제이다.

※ **아편/마약 경제** : 농부들과 기타 국민들이 수입원으로 아편과 같은 불법약물 재배에 매우 의존한다. 다른 작물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양귀비 재배는 밀 재배보다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의 상당부분을 탈레반에게 상납하더라도 여전히 이익이다. 아프간의 아편생산은 2019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에는 별도의 보고 대신 전세계 일반 자료만 보고되었다. 최근에 더욱 안 좋은 상황은, 메탐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화학적 마약 생산도 급증한 점이다.

* 탈레반은 2020년 3월까지에 해당하는 회계연도에 16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 수입원이 마약과 보석, 광물 등이다. 모든 마약밀매 수익의 70~80%가 탈레반 활동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아프간인 중 마약 소비자가 290~360만 명으로 인구 1인당 비율로는 세계 최고에 속한다. 인구의 50% 이상이 20세 미만인 이 나라에서 미래가 우려되는 수치이다.

※ **COVID-19 위기**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한 이란과 파키스탄이 아프간과 접경 국가들이다. 두 나라에 약 36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있었고, 이들이 아프간으로 귀환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 2020년 5월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34개 지방 중 29개 지방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감염자수 발표를 통제하고 낮게 보고되었을 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돌아와 수입원이 끊어지고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식량위기, 아사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 탈레반 점령으로 90%가 넘는 아프간의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는 위기이다(뉴욕타임즈 보도 9/12) 보도에 의하면, 아프간 34개 주 중 31개 주의 의료시설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탈레반 집권으로 지원이 동결되면서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이라고 한다.

※ **아프간 크리스천의 경제 상황** : 아프간의 크리스천 비밀 신자들은 아프간인들의 공통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 손쉬운 수입원인 마약재배와 거래 등을 피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고, 또한 조금이라도 크리스천 관련 의심을 받으면 그 일자리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다.

종교적 상황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WCD) 2020년 2월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99% 이상이 무슬림이고, 힌두교, 바하이교, 불교, 기독교 소수 그룹들이 있다. 아프간 무슬림의 90%는 수니파이며 약 9.7%만이 시아파를 고수한다. 하자라 부족이 주로 시아파이고, 최대부족인 파슈툰족은 수니파이다. 소수의 시크교, 힌두교, 바하이교 추종자들도 역시 크리스천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크리스천보다 단 한가지 유리한 점은 서구세계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뿐이다. 유일하게 국회의원 후보로 나갔던 한 시크교도는 폭탄테러로 살해됐다. 시아파 무슬림들에 대한 공격들도 더 증가했다. 오픈도어는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천 수를 “수천 명”으로 추산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인정되지 않는 아프간에서 크리스천은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일상생활 자체가 도전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사회가 조밀하게 친족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가 높고 사적 생활이 드러나지 않기 어렵다. 시골지역에서는 더욱 어렵다. 또한 탈레반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개인의 휴대폰까지 몇 시간씩 검사를 받기도 한다. 외국인조차 기독교 자료나 상징물을 소지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타인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다.

• **가정 영역** : 모든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부모가 자녀를 크리스천 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렵고 위험하다. 밖에서 아이들이 이슬람과 다른 의견을 무심코 표현했다가는 가족 전체가 안전을 위해 그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다. 배우자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이면 결혼이 무효가 된다. 이혼은 흔하지 않다. 이혼의 경우 크리스천 배우자는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자녀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

• **지역공동체 영역** : 무슬림 전통-복장, 수염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괴롭힘과 위협과 방해를 받는다. 무슬림 복장 뿐만 아니라 모스크에 가고 이슬람 종교 의식과 모든 공동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약간의 자유가 허용될지라도(이제 탈레반 치하에서는 달라질 것) 주요 도시들을 벗어난 지역들에서는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교교육은 이슬람 교리의 주입이 필수과목이다. 크리스천으로 의심되면 정부, 탈레반 또는 IS로부터 집중적인 심문을 당한다.

• **국가 영역** : 아프간 헌법 3조는 어떠한 법도 이슬람의 신조와 법들에 위반되거나 저촉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것이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가능케 한다. 개종으로 고발되면 신성모독과 동일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 신성모독죄는 지역종교당국 또는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신속하게 즉시 처벌 또는 처형된다. 크리스천으로(또는 기독교적인 서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면 여행에 감시와 제재를 당한다. 또 탈레반의 악명높은 검문소들이 빈번한데 통과하려면 기독교 자료들을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

• **교회 영역** : 아프간 교회는 없고 유일하게 교회로 기능하는 하나의 외국인 교회도 그 활동을 감시 받는다. 모든 형태의 모임은 탈레반 또는 감시기관의 높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모임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하고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모인다. 지하교회 비밀 신자들 역시 극도로 조심하여 만남을 가진다. 장소를 바꾸어가며 만나고 멤버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만난다. 성경을 팔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자기기로 나누는 것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아프간 여성인권과 크리스천 여성

아프가니스탄은 조지타운대학교와 오슬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여성/평화/안보 지수(WPS 2019/2020)에서 167개국 중 166위이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신체적 학대를 받기 쉬우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자율권은 거의 없다. 아프간에서 크리스천 여성이 받는 종교적 박해는 아프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고 사회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 집에 감금상태가 되는 것은 흔한 수단이다. 노예나 창녀로 팔릴 수 있고,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다. 강제결혼과 강간은 크리스천이 된 여성을 이슬람으로 재개종하

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남편은 아내를 폭행할 수 있다. UN보고(2018년5월)에 의하면, 아프간 여성 51%가 평생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며 여성 살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두번째로 흔한 여성 폭력이다. 2016년1월-2017년12월 기간에 280건의 여성 “명예 살인” 사례가 기록되었다. 여기에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을 당하지 않은 여성이 개종 사실을 숨길 수만 있다면, 여성의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새로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다. 심지어 남편과 가족에게 신앙을 전할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교회역사

주후 2세기 전에 이미 기독교가 아프가니스탄에 전해졌을 수 있다. 교회가 유제비우스(AD.260-339)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도마와 바돌로매가 파르티아와 박트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에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지역이 포함된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네스토리안 경교회로 발전했고, 헤라트, 칸다하르, 발크와 같은 아프간 도시들은 주교좌가 있는 교구들이 되었다.

13세기에 한 크리스천 통치자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술탄이 되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1405년 티무르 통치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17세기에, 아르메니아 상인들이 카불에 왔고, 그때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었으나 이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1871년에 아프간을 강제로 떠나야 했다. 카불에 개신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들은 1973년에 끝났다.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완전히 지하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탈리아 대사관 지하실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교회가 있으며 그것이 아프가니스탄 국가 내에서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적으로 접근이 불가하고 오직 외국인 크리스천들에게만 가능한 곳이다.

아프간의 지하교회는 빠르게, 이란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로 알려졌지만 아프간 교회의 안전을 위해, 여기서 아프간의 기독교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의 얼굴들



*사진 일부 출처 : IMB.ORG

샤리아 법 지배 하에 들어갈 아프간 비밀신자들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탈레반 고위 사령관 (Waheedullah Hashimi)은 탈레반 하의 아프간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며 샤리아 법만 이행할 것임을 확실히 시사했다.

그는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전혀 없을 것이고,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정치체제를 도입할지 토론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명백하니까. 그것은 바로 샤리아법이고 그게 다요.”

1990년대 통치 기간 동안, 탈레반은 샤리아법의 극단적 해석으로 알려졌다. 거기에는 여성억압과 배교자에 대한 폭력적인 처벌이 포함된다. 배교자는 무슬림을 떠나 크리스천이 된 이들을 포함한다.

아시아의 필드 디렉터 썸 형제는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 나라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지금은 불확실의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위험한 때이지요.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샤리아법이 어떻게 이행되는 것을 보게 될지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계속 중보해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CBN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지 성도 하미드는 탈레반이 크리스천 인구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눴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아는 한 크리스천 형제는, 북부 지방에, 리더인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가 사는 지역이 탈레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미드는

말했다. “우리 크리스천 형제들과 연락이 끊긴 도시들이 3곳이 더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배교자로 간주됩니다. 배교에 대한 처벌은 죽음입니다.”라고 하미드는 말했다. “탈레반은 그런 처벌을 실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접수한 이후로, 혼돈과 섬뜩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미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몰려가는 주민들의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쏟아지고 있고, 한편 거리와 일터에는 총을 든 탈레반 군인들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보인다.

하미드는 시편 말씀으로 기도를 요청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 57:1-5)



아프간 상황 Q & A



현재 아프간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또한 현지 소식통을 통해, 탈레반이 집마다 찾아다니며 불순분자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불순분자입니까? 서구(특히 교사들) 세계와 협력한 모든 사람들, 또한 동성애자와 비무슬림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심각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발각되는 사람은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납치, 고문, 살해. 2017년, 한 게스트하우스가 공격을 받아 독일 여성 한 명과 경비원이 죽었습니다. 탈레반은 2014년 카불에 있는 한 남아공 가족도 살해했습니다. 외국인 구호사역자들도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하물며 현지인 크리스천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이 나라에 남아서 비밀신자로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이들은 탈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년간 크리스천들이 자유를 경험했나요?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에 의해 세워진 지난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지 못했어요. 크리스천들 외에 시크교도들도 종교적 소수자인데 이들은 주로 인도혈통으로 포교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덜 위협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항상 시크교도로 살아가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단 상당한 적대감과 끊임없는 ‘다와(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최소한 시크교도라는 정체성을 인정받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배교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숨겨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아마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기타 종교 공동체, 이단종파들도 있지만 그

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상황이 변할까요?

아프간은 계속 기독교 박해지수(월드와치 리스트) 10위 안에 든 국가이며, 지난 몇 년간 박해지수 순위가 2위로, 북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박해가 급증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접수했다는 것은 이제 또다른 차원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위협과 위협이 증가했습니다.

성도들은 탈레반의 정권장악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실망하고, 어려울 때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군대는 떠나고 정부군은 도망쳤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준비되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도들의 필요도 일반인과 같습니다: 안전, 식량, 깨끗한 물, 의료, 등입니다. 많은 폭력사태로 공급체인이 무너지고 병원들도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상수도가 아직은 나오지만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많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교전사태가 발발하면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어 수백만 명의 의료, 의약품, 의료진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가요?

현재 상황은 글자 그대로 기도 밖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면 지나치게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옅은 보호막조차도 실낱 같은 정의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글자 그대로, 그들에게 남겨진 전부입니다. 여기 성도들은 안전하게 머물러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어려운 이때에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임마누엘'만 남았습니다

국제오픈도어 커뮤니케이터 Jan

아무도 '911' 불에 타는 세계무역센터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맞이한, AP통신 사진기자(Richard Drew)의 카메라에 잡힌 그 '떨어지는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이룩하는 비행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몇 분 후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누가 이 영상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이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본 것은 무엇인가? 스트레스? 그렇다. 공포? 그렇다. 절박함? 그렇다.

우리 대부분은 이 나라에서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내부에서 폭발하여 파열되었다. 2001년 9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처럼. 남은 것은 먼지와 폐허, 잃어버린 생명, 파괴된 희망이다.

지난 20년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던가?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20년을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카펫 밑으로 덮어버릴 수는 없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다. 이들은 탈레반이 통치했던 시대를 기억할 수 없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고 많은 희생이 드러졌지만 이 나라에는 분명히 진보가 있었다. 자유를 증진시키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기회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소수자들 보호, 교육, 고용, 의료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여성들을 예로 들면, 많은 여성들이 책을 읽고 자기개발을 했다. 의료혜택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오랜 기간 중 가장 건강한 세대가 되어 있다.

불행히도, 2001년 새 정부에게 종교적 자유의 증진은 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그 후로도 아니었음은 처음부터 명백했다. 사회와 정부 각계각층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슬람 버전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샤리아 법정은 항상 소수

종교자에게 반대할 것이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도 다를 바가 없다. 다르다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극단주의자들은 이 순간을 20년간 기다려왔다. 이제 그들이 그동안 이루어진 진보를 되돌리고 불순분자들을 색출하여 제거할 시간이 왔다. 서구에 조력한자, 샤리아법에 저항한자, 무슬림이 아닌 자들 누구나 해당된다.

한 현지인은 전한다: '우리 국민들은 전사들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자유를 맛보고 교육을 접한 그동안의 창문을 통해 변화되었다. 맞다, 두려움으로 마비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행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을 읽고, 생각이 넓혀진 사람들도 항상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고의 지평이 넓혀졌다. 우리는 길을, 해결책들을, 추구해야 할 뿌리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제로 상태부터 다시 시작하여, 우리 부모와 조부모가 그들의 생명을 바친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것은 서구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배울 권리, 존재할 권리, 꿈을 꿀 권리, 예배할 자유; 이것들을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다. 부디 우리와 함께 연대해 달라.'

전세계 그리스도의 몸, 모든 크리스천들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박해는 2001년 탈레반 정권의 축출 이후로 단지 계속 되어온 정도가 아니라 급등했다. 그리고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탈레반이 그동안 저질러온 잔혹행위를 열거할 필요는 없다.

성도들이 이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모두가 자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께 자기에 무엇을 원하 시는지 분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현지 성도는 전한다.

예상되는 폭력과 박해의 증가 속에서, 교회가 고난 받는 그들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의 필요가 절박할수록 더욱 알릴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현지 크리스천 상황을 알리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NGO활동가들도 현지상황 보도들이 탈레반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33년간 아프간을 연구해 온 박종상 목사님도 기독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사역을 알리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한편 선교적 측면에서 아프간의 지난 20년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하면서도, 탈레반 이전이나, 탈레반이 집권하던 시절, 또 탈레반이 패배한 2001년도 이후 외부에서 아프간 선교를 위해 많은 이들이 들어오던 시절까지, 현지 크리스천들이 피부로 느끼는 압박과 위협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프간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박해국가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협이 10배나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현지 사역자의 전언입니다. 아프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아프가니스탄 국가 전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길. 심문과 잔인한 폭력 앞에서 어떻게 할지 주님께서 안내하고 인도해주시기를.
-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기능할 수 있기를.
- 의료와 보건을 위해. 의약품들의 공급을 위해.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학대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담대히 싸울 선지자적 전사들이 일어나서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건강이 지켜지기를.
-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고 계속 수도물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공급이 제한되지 않기를 : 파괴된 식량공급 체인은 서서히 복구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구매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탈레반 군인에게 먼저 공급되고 우리는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현지 사역자가 전합니다.
- 일용직 노동자들과 현재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이 주어지도록.
- 성도들이 필요한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5가지 기도제목

1. 아프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2. 아프간 국내외 난민들을 위해.
3. 아프간 여성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
4. 아프간 의료체계의 지탱을 위해.
5. 아프간 치안을 위해-이슬람 무장세력의 서식처가 되지 않도록.

시리아 청년 ‘안와르’ 이야기

셰이크(이슬람 지도자)의 아들에서 교회 ‘희망의 센터’의 교사로

낙관주의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인데, 만약 가정을, 가족을, 친척을, 모든 공동체를 잃는다면 무엇이 낙관주의의 자원이 될 수 있을까? 만약 형제 자매들에게 거절당한다면? 부모님에게 욕을 먹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다면? 당신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안와르(Anwar)는 “나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25살의 안와르는 약 7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살았던 시리아 교외 출신의 젊은 청년이다. 그의 마을은 모두 알라위파(Alawite)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셰이크라 불리는 지도자가 있고, 그는 알라위파의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추종자이며, 기도, 장례, 결혼, 종교재판을 집행하는 의무를 가진다. 안와르는 이 셰이크의 아들이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의 깊은 눈길에서 그의 마음이 보였다. 이 인터뷰는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부모님과 2명의 자매, 1명의 형제로 이루어진 6명의 종교적인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는 것은 안와르를 마을에서 유명하게 만들었다.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은 저에게 정말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늘 배제되었고 친구도 많이 없었어요. 저는 몇 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있었지만 또한 매우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고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안와르는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어린 아이의 미소를 가진 늘씬한 젊은 청년이다. 그는 땅바닥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제가 15살이 될 때, 저는 아버지께 알라위파 종교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라가 정말 누

구인지,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불행히도 아버지는 저에게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네가 성장하면 더 많이 알게 될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지요.” 안와르는 항상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어떤 기도문을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어떤 규칙을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림이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답도 주지 않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

알라위파 신앙은 매우 비밀스러웠다. 안와르는 여자들이 그 종교의 비밀을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직 일련의 훈련을 거친 특정 나이에 도달한 남자들만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때 종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다. “저는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확신했고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속이고, 그들은 신이 아닌 인간을 예배하고, 신앙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안와르는 부모님과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천들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배웠다. “저는 어떤 크리스천도 제 인생에 들어오게 허락해서는 안되었고,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종교로 빠져들게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크리스천 여성을 만났어요.” 안와르는 이 여성을 모욕했고, 그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이야기해주었을 때, 그녀를 비웃었다. “저는 그녀가 이야기한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께 직접 질문

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더 믿지 않았어요.”

시리아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안와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부모님이 형의 강제 징용을 연기하려고 애쓰는 동안, 안와르는 학생이라는 구실로 자신의 강제 징용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 때 그는 학업에서 낙제하여 대학에서 퇴학될 위기에 놓였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심각한 복통을 겪었고 중심가에 있는 가족의 별채에 혼자 살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저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무엇보다 크리스천 여성이 계속해서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나눌 때 더 심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때 저는 알라가 저를 미워한다고 믿었고, 저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는 알라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안와르는 그의 비참한 인생을 끝낼 방법을 찾았고, 그에게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또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가 너의 인생을 끝낸다면 너는 잃을 게 없어. 예수님께 한 번 이야기해보고 그분이 너에게 무엇이 라고 말하는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그 때 자살하면 되지. 그럼 한번 시도해보자.’ 그녀는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 저는 제가 혼잣말을 하는 미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폭 빠져갔습니다. 저는 찬양과 말씀을 들으려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자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님께 말하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친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안와르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성경과 찬양과 설교말씀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저는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안와르는 가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화하기 위해 집을 옮겨야 했다. 그가 새로 발견한 믿음은 그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개종에 대해 가족들이 알아낼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 “만약 가족들이 제가 위험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쫓아내고, 제 유산을 빼앗고, 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안와르는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이란 단어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엄청난 압박 가운데 있었다. 특히 개종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공격당하고 투옥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 그랬다. “제 친구가 도시에서 처음으로 저를 교회에 데려갔을 때, 저는 설교도 찬양도 듣지 못하고,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가족들에게 말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안와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그가 셰이크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곧 산불처럼 번져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졌다. 안와르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머니가 신경쇠약에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가족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여동생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마. 엄마는 지금 오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어. 오빠는 더 이상 내 오빠가 아니야. 오빠에겐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았어? 오빠는 명예를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같은 시기에, 한 크리스천 친구가 안와르를 교회 컨퍼런스에 초대했는데, 안와르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상황을 직면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 문제를 뒤로하고 컨퍼런스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지.

“매우 가슴 아팠던 상황들이 자세히 기억나요. 어떻게 우리 가족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안와르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전화를 꺼놓고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그 며칠은 제 인생에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돌아올 때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러나 안

와르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탄은 안와르가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안와르가 컨퍼런스에 가기 전에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와르는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잠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형이 전화해서 그에게 당장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안와르는 도시로 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안와르는 오픈도어와 동역하고 있는 교회에 연결된 친구에게 연락했다. 이 교회를 통해 오픈도어는 안와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할 수 있게 도왔다.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되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가 컨퍼런스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 때였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들을 잃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쓰지 않고 있던 부모님이 주신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 돈으로 얼마 동안은 그럭저럭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와르는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아야 했다.

안와르의 친구는 ‘희망의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고 센터 운영진에게 안와르의 상황을 전했다. 안와르는 희망의 센터에서 5학년(11세), 7학년(13세), 8학년(14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채용되었다. “그들은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를 도와주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새로운 소망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희망의 센터는 1학년(8세)부터 9학년(15세) 학생들에게 개인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하나의 기관이다. 이곳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활동들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영적인 성장도 목표로 한다.

안와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예수님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그들은 기도한다. “어린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와르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감사해한다. “희망의 센터는 제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요. 저의 옛 가족이 저에게 이방인처럼 되고 난 후, 저는 속할 곳이 없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이제 저는 교

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그들은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함께 웃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만약 희망의 센터가 없었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노숙자가 되어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이 되었겠죠.”

안와르가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변화도 분명히 보였다. 그의 호흡은 편안해졌고, 눈도 빛났고, 더 편안해 보였다.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감정의 또다른 면을 보았다.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저의 형제가 되셨고, 동행자가 되셨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살하고 싶었을 때, 예수님은 저를 붙잡아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일들이 잘못될 때면, 저는 예수님께로 피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삶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이곳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안와르가 말하였다.

“시간이 되돌아간다면 저는 훨씬 더 빨리 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1초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똑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희 가족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전처럼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내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화해입니다.”

안와르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가 찾은 진정한 자유와 삶의 목적을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한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베트남 크리스천 6 가정, 물탱크를 갖게 되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중국 접경지역에 사는 모든 가정에 물탱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물 저장 필요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이 지역은 산악지대이고 바위가 많아 지하수를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빗물이 주된 수자원인데 저장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각 가정에 물탱크 설치를 위한 1천만VND(약450달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6 가정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한 목회자에 의하면, 지역당국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크리스천들이다!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가라, 가서 너희 교회에 도와달라고

해라! 정부지원을 받고 싶으면 우리 문화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조상들을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베트남의 이 북부 지방 주민들은 가난합니다. 때로는 식탁에 음식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물탱크를 설치할 돈은 능력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건기가 되면 이들은 6시간씩 걸어가서 강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서 이 가족들이 일상적 필요에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속히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했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니카의 희망 재봉틀



힌두교에서 개종한 모니카는 남편과 첫눈에 반한 사랑으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모니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 프로산토는 모니카와 세 자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결혼한지 10년 만입니다. 수입이 없는 모니카와 아이들은 며칠씩 굶곤 하다가 결국 마을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모니카는 식량구호를 받고 수입창출을 위한 재봉틀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나는 우리 애들을 위해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박해 피해 가정을 돌보는 오픈도어의 ‘희망의 선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의선물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2021 오픈도어 온라인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 2021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선교학교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제적인 선교 참여의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강의 일정

- 기간: 10월 12일-11월 30일 (8주 과정)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2. 주제: 복음의 현장에서 북한을 품다

3. 강의 목록



날짜	주제	강사
1강 (10월 12일)	북한 선교 개론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2강 (10월 19일)	북한의 사상과 체계에 대한 성경적 접근	정종기 (고신통일선교원 원장, 아세아연합신대 교수)
3강 (10월 26일)	국내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선교	강디모데 (엔케이피플 선교회 대표)
4강 (11월 2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대표)
5강 (11월 9일)	탈북자 사역과 국제 NGO의 북한선교	팀 피터스 Tim Peters (Helping Hands North Korea 대표)
6강 (11월 16일)	해외 북한 여성 사역	오픈도어 사역자
7강 (11월 23일)	해외 북한선교현장	
8강 (11월 30일)	북한 지하교회와 내지선교	

(강사 및 일정 변경 가능)

4. 접수

- 9월 1일 - 10월 6일까지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비: 4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50% 할인)

5. 문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